

이슈

2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2922호

내가 왜 떴게?

이번엔 진짜 답습니다

●조민아, 베이커리 :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그동안 운영해온 베이커리의 문을 닫는다. 인스타그램에 “홍대 조민아 아틀리에 매장 운영이 두 달 남았다”라고 썼다. “바나나푸딩 전국 택배서비스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서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외로워지거나 이따금씩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보니 5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않았나 보다”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조민아처럼 아쉽진 않은가 보다. 조통과 비아냥대는 댓글이 우르르 달렸다. 조민아빵집은 그동안 왕왕 구설에 오르내렸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최대 6만원까지 차이가 나는가 하면 개당 1만원짜리 양갱도 심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폐업을 예고했지만 결국 문을 닫지는 않았다.

불만 있는 사람, 올라와

●‘골든보이’ 호야, 美 대권선언 : 두 주먹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복싱의 전설’ 오스카 텔 라 호야(45)가 미국 대선에 나설 모양이다. 텔 라 호야는 12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설이 진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주지사가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멕시코계 미국인이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당연하다. 전성기 시절 링에서 보여준 소나기 콧비이션처럼만 정치를 한다면, 감히 그대 앞에서 이유를 댈 인물은 없을 것이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대한민국 뉴 캡틴 손흥민 | 5개월의 대장정 끝내고 다시 정글로…

‘Son의 전설’은 지금부터 시작!

〈손흥민〉

월드컵서 독일 깨고 AG선 金 선봉 전방서 후방까지 헌신하는 리더십 벤투호 A매치 통해 주장 대관식도 장애물 사라진 손흥민의 진화 주목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었다. 이제 찬란한 가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축구의 에이스 손흥민(26·토트넘)이 험난하고도 짜릿했던 여름 레이스를 모두 마쳤다.

그야말로 대장정이었다. 시작은 파사로 온 햇벌이 감돌던 5월부터였다. 2018러시아월드컵을 앞둔 국내 평가전에서 손흥민은 선봉에 섰다. 생애 두 번째 월드컵을 앞둔 26살 공격수는 4년 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목을 사리지 않았다.

6월 사전캠프지 오스트리아를 거쳐 결전의 땅 러시아로 떠난 이후에도 마음가짐은 그대로였다. 자신의 앞마당인 최전방을 휘저으면서 동시에 최후방 수비진에 가담하며 그라운드 곳곳을 누볐다. 조별리그 1차전 스웨덴전 직후 공격수가 수비에 너무 가담한다는 불멘소리로 나왔지만 손흥민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토록 기다리던 골맛도 봤다. 멕시코와의 2차전 통쾌한 중거리슛과 독일과의 최종전 썩기골을 터뜨리며 자신이 한국축구의 에이스임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그러나 2014브라질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 번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신 뒤 굵은 눈물을 쏟아야했다.

비록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는 또 한 번 이뤄내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좌절할 틈이 없었다. 곧바로 이어진 소속팀 일정과 8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때문이었다. 자신의 향후 진로를 크게 좌우할 병역 면제 혜택이 걸린 이 대회에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이끌었다. 동갑내기 황의조(26·김해 오사카), 만행 조현우(27·대구FC)와 함께 후배들을 다독이며 험난한 원정을 무사히 치렀다. 결실도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대회 정상 등극과 병역 면제라는 커다란 선물을 함께 안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등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곳곳을 오간 손흥민. 이제는 설 만도 했지만 휴식은 사치에 불과했다. 이번엔 축구국가대표팀의 새 선장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의 부름이었다. 코스트리카~칠레와



한국축구의 간판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바쁜 여름을 보냈다. 소속팀 일정을 마친 직후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스포츠동아DB

의 A매치를 앞두고 손흥민은 다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동시에 선배 기성용(29·뉴캐슬)의 뒤를 이어 주장 완장도 차게 됐다. 천방지축으로 통하던 손흥민이 이제 내로라하는 태극전사들을 이끄는 캡틴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지난 시즌 종료 직후인 5월 이후 또다른 ‘살인일정’을 소화하면서 ‘혹사노란’까지 벌어졌던 그다. 11일 칠레전 직후 만난 손흥민은 그러나 피곤한 기색이 없어보였다. 빼곡한 일정 탓에 힘들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많이 뛰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힘들지 않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일은 늘 영광이다”며 웃었다. 대한민국 축구 에이스다운 의젓함이었다.

5개월 가까운 대장정을 마친 손흥민은 12일 소속팀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제 시작이다”는 본인의 표현대로 2018~2019시즌은 겨우 발을 뻗다.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찬란한 가을을 위해 손흥민은 다시 뛰다. 토트넘은 15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웨블리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오늘밤 김제동’ 편향 논란에 답하다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진행을 맡은 김제동은 여러 논란에 대해 “일단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 KBS

“저쪽서 보면 이쪽이 편향난 전문가들 말의 전달자 중립의 의미 다시 생각 중”

KBS 1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진행을 맡은 김제동이 좌편향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제동은 12일 서울 논현동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편향,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편향”이라며 “뉴스 형태의 프로그램이지만 방송인들이 진행하면 뉴스가 아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 뉴스의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동이 KBS 시사 프로그램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동석한 정병권 시사교양국 부장은 “김제동은 시청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며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늘밤 김제동’으로 인해 이 시간대에 편성된 ‘뉴스라인’은 방송 시간이 10분 축소됐다. KBS 공영노조는 지난달 1일과 23일 성명을 내고 “김제동 기용으로 객관적인 뉴스가 아닌 특정진영 위주의 편파적 뉴스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제동은 “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계적 중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립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밤 김제동’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날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색다른 포맷의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시사교양국에서 기획했다. 10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밤 11시30분 생방송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NEW IH-디지털아궁이

24개월 무이자 할부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 쇄도

...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기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족에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있다. 기존 가스 돌솥밥 기계보다 공간 차지가 덜하고 유해가스와 열기가 없어 주방, 홀을 비롯한 어디서든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설치가 손쉽게 가능하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짓 지은 듯한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계손님, 예약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족에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디지털 아궁이를 구매한 대천휴게소 상하행선 관계자는 “이전에는 많은 구수의 제품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적은 구수로도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와도 바로 처음 한 밥맛으로 나갈 수 있어 많은 양의 밥을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이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한해 18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 저리 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문의 1544-7871